

자율적인 생산조절로 업계발전 유도...

- 닭사육수수 사상 최대 기록, 장기불황 경고 -



▲ 지난 7월 13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는 농림부 주재로 '양계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회의'가 개최되어 양계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개진되었다.

지난 7월 13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는 정부주도하에 '양계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박현출 축산국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본회 최준구 회장을 비롯, 생산자, 조합, 유통(육계, 채란), 육계 계열사, 외식관련·수출입 관련 단체 등 양계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관련인들이 참석해 업계현황 및 대책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에서 양계산물 수급조절을 위해 회의를 주재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참석자 : 박현출 농림부 축산국장, 이재용 농림부 축산경영과장, 최준구 대한양계협회장, 이인종 대한양계협회 증계부화분과위원장, 김선웅 대한양계협회 채란분과위원장, 남상길 대한양계협회 육계분과부위원장, 한형식 한국계육협회장, 이문용(주)하림 사장, 김인식(주)체리부로 사장, 이병현(주)동우 전무, 최홍근 한국계란유통협회 회장, 현광래 대전충남양계조합장, 이영재 한국양계농협조합장, 이정현 농협중앙회축산지원부장, 김강식 한국육류수출입협회장, 문정진 전국토종닭연합회 총무, 진기형 한국치킨외식산업협회 전무)

1. 닭사육수수 사상 최대 기록

지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이후 양계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사육농가들이 양계사육 수수를 늘린 결과 지난 1977년 정부의 공식통계가 시작된 이후 지난 6월에 1억4천934만수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닭사육수수는 지난 1977년 3천22만수에 불과하던 것이 양계산업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1996년 6월 1억257만수로 1억수를 돌파하였다. 이후 시세의 변동에 따라 증감이 반복되면서 1억수 안팎 수준을 보여왔다. 금년 6월 이전의 사육수수 최고치는 2002년 6월 1억2천995만수였으며, 6월의 사육수수는 3개월 전보다 3천967만수(36.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장기간의 양계산물 고가 행진이 사육수수를 증가시키는데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닥쳐올 불황에 대비해 다방면으로 대책 방안을 내놓는 등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박현출 축산국장은 하나를 버리면 열 개를 얻을 수 있는 이치를 되새겨, 과잉이 초래되기 전에 쿼터제, 노계도태 등을 통해 산업의 안정화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용 축산정책과장은 이날 회의 배경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육계 및 계란가격이 호황을 누리면서 육계의 경우 지난 6월 전분기 보다 무려 67%(평균 증가율 42.8%)의 증가율을 보였고, 산란계는 5.9%가 증가하였다고 전제하면서 육계의 경우 육계원종계 쿼터제 실시와 종계의 생산

성 저하로 육계병아리가 부족하여 백세미 입식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 한데 기인하였으며, 채란계는 노계도태지연과 환우에 그 원인을 찾았다.

2. 정부의 육계 및 산란계 가격안정 대책

정부에서 내놓은 육계 및 산란계 가격안정 대책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육계분야

① 육용종계 75주 이상 전량 도태 유도키로

정부에서는 앞으로 육용종계 75주 이상되는 종계는 전량 도태를 유도키로 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으며, 우선적으로 계열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계노계군은 65주부터 시범적으로 우선 실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8월부터 분양되는 종계는 75주 이내에 사육의무각서를 쓰는 것을 의무화되되 만약 75주 이상 사육농가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내용을 각서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자는 의견을 주었다.

② 육용원종계 쿼터제 지속실시

2005년 상반기까지 쿼터물량을 94,000수로 유지하고 있으나, 육용원종계 3사로부터 종계의 주령별 숫자가 조사, 완료되면 하반기에는 국내 닭 가격 등을 고려하여 쿼터물량을 조절하는 등 앞으로 쿼터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산업안정을 기하기로 하였다.

2) 산란계 분야

① 노계군 조기도태 유도

하절기 계란소비 둔화와 적체된 물량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계도태를 적극적으로 유도키로 하였다.

② 계란 소비자가격 인하 노력

농협하나로 매장 등 금년 상반기 계란판매금액은 전년보다 3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계란판매물량은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판매물량을 높이기 위해 판매가격을 낮추어 소비촉진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3. 정부에서 제시한 양계산업 발전을 위한 현안과제

정부에서는 전체적인 양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안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풀어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다.

① 육계병아리 가격 연동제

종계업체와 육계업체간의 동반자의식을 갖고 상호 이익을 균등하게 배분하기 위해서 육계병아리 가격 연동제 도입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오리업계에서는 이미 이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병아리 가격은 입식후 35일 출하되는 시점의 육계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육계가격에 비례해서 가격을 정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병아리 가격 결정에 대한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았다.

② 종계 DB 구축사업

육계 및 종계산업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 지난 2004년 6월부터 실시하기 시작한 종계데이터베이스 사업은 지금까지 육용종계 등록종계업수 250개소 5,935천수를 대상으로 스티커 작업 등 정확한 수수파악에 들어갔으며, 금년 4월부터 대한양계협회에서 위탁을 받아 현재 DB프로그램업체 선정 등 업무를 추진해 가고 있다. 그러나 무등록 종

계장, 환우실시 등으로 정확한 수수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75주 이상 종계를 사육한 농가는 종계분양시 패널티를 부여하고 양계업 등록과 연계하여 종계무허가 종계장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종계분양을 금지키로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③ 양계의무자조금 조기 추진

2002년 11월에 제정된 “축산물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거 현재 산란계와 육계 2개 품목으로 나뉘어 의무자조금제도가 추진되고 있으나, 양돈과 한우 등 관련단체들에 비해 추진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조기에 의무자조금제도 추진을 독려하였다.

따라서 육계와 산란계 대의원(150명) 선출을 위한 투표를 10월 이내로 계획을 잡는 등 사전 준비 작업에 착수하되, 육계의 경우 육계계열화업체와 계열농가간의 거출금 의무자 확정과 산란계의 경우 의무자조금 거출금 수납기관 결정 등 조기 협상을 완료하여 추진을 해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④ 닭고기 수출입 대책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덴마크(63%), 태국(12%), 영국(10%), 중국(8%), 프랑스(7%)에서 수입되면서 태국과 미국에 편중되었던 수입선이 다변화되고 있으나, 미국산, 브라질산이 풀릴 경우 업계의 어려움은 커질 것이다. 수출은 닭날개와 삼계탕이 홍콩, 중국, 일본 등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수출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미 닭고기(삼계탕) 수출을 위한 준비작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수출업체에는 수출물류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박현출 농림부 축산국장(가운데)이 양계산업 안정화를 위한 농림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최준구 대한양계협회장(우)과 한형식 계육협회장(좌))

⑤ 백세미 관리강화

그동안 산란실용계 암탉과 육용종계 수컷으로부터 생산된 닭(일명 백세미)에 대해 종계수준에 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백세미알을 생산하는 산란실용계 농가(4월 현재 5개 계열업체 계약농가 68 농가)를 파악하고 있으며, 별도의 관리방안을 만들어 관리해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재래닭과 토종닭, 백세미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학계와 연계하여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4. 향후 정책방향

정부에서는 양계분야 민간자율 수급안정을 위해 종계쿼터제, 수매 등 '03년 및 '04년에 19,771백만원을 집중 투자하여 수급조절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수급조절을 생산자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부로부터의 자금지원은 중단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제는 자조금 사업 활성화 등에 힘을 기울여 자율적인 업을 영위

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5. 양계업계의 의견 내용

이에 대해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불황이 드리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회의를 갖게 되는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어려움은 있지만 충분한 토의를 거쳐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희망하였으며, 조만간 각 업계별로 토의를 거쳐 발전방안을 내놓을 것에 의견을 모았다. 모든 사항에 대해 결론은 도출하지 못했으나 각 사안별 업계의 의견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1) 육계업계

육계업계에서는 지난 6월 미국 LA에서 발생한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일부지역에 수입을 제한했던 사례를 들면서 지역적이 아닌 국가 전체적으로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으며, 닭고기 수입 통관시 전수검사를 통해 질병유입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라 강조하였다. 또한 국내 병아리의 품질 강화에 종계업계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계열업체에서는 정부에서 제시한 쿼터제, 병아리가격 연동제 등 모든 문제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을 전제하고, 종계DB사업은 앞으로 부화장, 중추장까지 확대해서 실시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자조금에 대해서는 150명의 대의원 수가 많아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의무자조금의 조기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아가지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미국 등 닭고기 수출지원방안 등 정부

의 정책에 고무적이라는 뜻을 밝혔다.

토종닭 연합회에서는 토종닭은 연간 6천만수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제는 계열업체도 상당부분 토종닭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을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토종닭과 재래닭의 정의를 확립하고 본격적인 국내사업으로의 정착을 모색해 나갈 뜻을 밝혔다.

2) 채란업계

채란분야에서는 산업안정회를 위해 노계를 출하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노계처리장을 확충하거나 사료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현재 채란업계에서 가장 심각한 유통문제에 대해서 계란발표가격에 대해 DC폭을 줄이는 방안 등에 대해 계란 상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피력했다.

계란유통협회는 산란계 65주령 이상 계군은 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과 난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유통의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고 소비촉진을 위해 국군의 식단에 계란매뉴를 추가시키는 등 소비촉진 방안을 제안하였다.

조합에서는 전 세계에서 계란소비가 가장 많은 일본의 경우 50% 이상이 가공란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가공란 사업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현재 환우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축산연구소를 통해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업운영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3) 종계업계

종계분야에서는 쿼터제, 종계 DB구축, 병아리 연동제 등 정부에서 제안한 문제들에 대해서 업계 발전을 위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을 밝혔

다. 그러나 병아리 연동제는 현실성에 맞는지 연구를 해보아야 할 문제이며, 원종계 쿼터제의 경우 아직 그 효과를 파악하기에는 아직 이르고, 소규모 농가들은 종계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어 이러한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란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육용종계의 경우 75주령에 도태를 해야 한다는 조항은 질병으로 인해 미리 환우를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지켜질 지는 미지수이며, 종계가격이 높게 치솟으면서 도태장려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도태를 시킬 농가가 많아질지 의문스럽다는 의견을 내비쳐 실효성과 현실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종계분야에도 의무자조금을 실시하여 자율적인 수급조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6. 맺음말

이번 회의를 거쳐 양계산업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하였지만 정부에서의 기만한 대처방안 제시는 우리 업계발전을 위한 진일보한 정책 대안임이 틀림없다. 우리 생산자들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품생산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각 업계별로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거쳐 발전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업계는 앞으로 장기불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 있다. 범업계적으로 힘을 모아 슬기롭게 대처하고 발전적인 양계산업을 만들어갈 기원한다. (정리 | 김동진 홍보팀장)